

“러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출입 난항”

수출입 중소기업 70.3%가 응답...사태 장기화 대비 대책 마련 시급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수출입 중소기업 313개사를 대상으로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중소기업 수출입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라우크라이나 사태로 직·간접 영향을 받는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조사 결과, 러·우크라이나 사태로 수출입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10곳 중 7곳 이상(70.3%)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사태 영향의 지속 기간에 대한 질문에는 2023년 이후(30.5%), 2022년 4분기(29.1%), 2022년 3분기(20.0%) 순으로 응답해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러·우크라이나 사태로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들 중 32.3%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67.7%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

의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물류 운송 차질(64.8%)이 가장 많았으며, 대금 결제 중단·지연(50.7%), 수출통세에 따른 수출 차질(38.0%) 순으로 나타났다. 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73.2%)가 가장 많았고, 원부자재 수급 차질(56.4%), 원·달러 환율 급등(54.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태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책(복수응답)은 원자재 비축물량 확보(35.1%)와 납품단가 인상(35.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응 방안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31.6%에 달해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원하는 정부 지원책(복수응답)은 원자재 비축물량 확보 및 중소기업 우선 수급(46.3%)이 가장 높았으며,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41.2%), 안정적 외환시장 관리(35.8%) 순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상승 조사 결과, 이번

사태와 관련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기업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은 10곳 중 8곳인 79.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30%~10% 초과 하락(33.2%), 10% 이하 하락(29.1%), 50%~30%초과 하락(18.0%), 50% 이상 하락(10.5%) 등으로 나타났으며, 영업 손실 전환을 예상하는 기업도 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가격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4.2%의 기업만이 전액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기업들은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반영을 하지 못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가격 경쟁력 약화(49.2%)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장기계약에 따른 단가 변경 어려움(46.8%),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 우려(39.7%) 순으로 응답했다.

원자재 상승에 따른 기업의 자체 대

응책(복수응답)으로는 원자재 외 원가 절감(39.0%)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원자재 선(先)구매 및 확보(31.3%), 납품 가격·일자 조정(29.1%) 대체 수입처 검토(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응 방안 없음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21.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해 희망하는 정부 지원책(복수응답)으로는 원자재 가격 및 수급 정보 제공(34.5%), 원자재 구매 대금·보증 지원(32.3%), 조달청 비축 원자재 할인 발행(29.4%) 순으로 나타났으며,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도 20.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대금결제 중단, 수출 감소 등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급등하고 있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불을 지핀 격”이라며 “원자재 가격 변동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시행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보안 인재 키움 지원



공단 ICT 정보시스템 장비

국민연금, 우석대 등 3곳에 기증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지난 21일, 22일 양일에 걸쳐 내 용연수 경과 공단 ICT 정보시스템 장비를 우석대학교 등 3곳에 기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증식은 ‘사이버위협 대응 인재육성을 위해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내 용기간 초과 등으로 교체하는 장비를 업무협약 체결 대학교에 기부하는 등 공단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공·설 치되는 정보시스템 장비는 사전 보안성 검토를 거쳐 저장장치 내 자료는 삭제했고, 모의해킹 및 보안 취약점 진단 등 현장 중심의 실습환경을 마련하고자 기증했다. 특히 랙(RACK) 단위 실습 세트를

제공해 정보 보안 분야의 모든 실습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다. 또한 실습장비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인턴십과 전문강사 지원 등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진행해 학생들이 미래의 정보보안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연금공단 김청태 디지털혁신본부장은 “기증된 정보시스템 장비를 통한 전문교육 지원이 정보 보안 관련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력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정적인 사이버위협 대응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최대희 기자

LX-캠코, 감사 전문성 강화 윤리경영 확대 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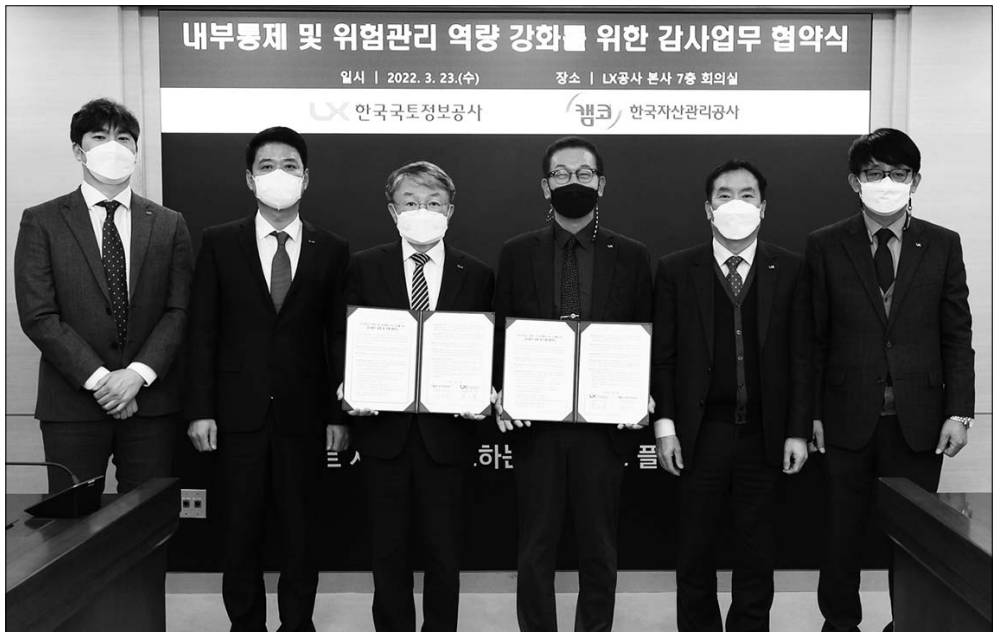
LX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성기청)와 한국자산관리공사(상임감사 이인수)가 감사 전문성 강화와 윤리경영 확대를 위해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성기청 상임감사와 이인수 상임감사는 LX공사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와 위험관리역량을 높이기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감사기법 우수사례 공유·벤치마킹 △감사업무 선진화를 위한 인력풀 공동 구성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협력채널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LX공사가 추진 중인 ‘상호인식 프로그램’ (다면평가), 감사자문위원회, 옴부즈퍼슨제도 고도화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지식·노하우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최대희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감사 전문성 강화와 윤리경영 확대를 위해 23일 전북혁신도시 LX본사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 = 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북임실변전소 건설 3자 협력

한전 중부건설본부-임실군-신덕면 상생협약체

한전 중부건설본부(본부장 김경수)는 임실군청 및 신덕면 상생협약체와 154kV 북임실변전소 건설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23일 체결했다.

임실군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임실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증가하는 신재생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 기관과 주민이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변전소 건설을 위해 사업설명회 등 약 2년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한 결과, 임실군과 상생협약체는 오묘토 정화시설 부지를 한전에 제공하고, 한전은 주변 마을에 특별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공사비는 약 200억원

으로 선하지 인근에 가공 송전선로 1기와 154kV 육내변전소를 신설하는 사업이며, 이번 변전소 건설로 접속 대기 중인 약 470여개 태양광발전소 62MW 재생에너지 물량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부지확보 및 인허가 기간 등 사업기간을 24개월 단축할 수 있게 됐으며, 북임실변전소는 내년 10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김경수 본부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변전소를 작기에 추진하고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한전 중부건설본부는 임실군청 및 신덕면 상생협약체와 154kV 북임실변전소 건설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23일 체결했다.

경진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내달 12일까지... 20명 집중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은 도내 우수 예비창업자의 창업기반 지원과 정착을 위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수준별 맞춤형 교육, 전문가 1:1 전담 멘토링, 점포체험 교육, 사업화자금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실제 창업과 비슷한 환경에서 교육생이 직접 점포를 운영해보는 점포체험 교육 과정을 통한 창업 모델 검증·보완 기회를 제공해 성공적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매장 모델링, 시제품 개발, 브랜드 제작, 마케팅 등의 사업 모델 비즈니스화 지원을 위해 사업화자금(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4월 12일까지이며, 도내 우수 예비창업자 20명을 모집해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서류, 제한업종 등 자세한 사항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bkr) 및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www.bizsazack)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희 기자

정읍 농어촌공,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 총력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서기수)는 2022년 안성영농과 영농기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저수지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관내 29개 저수지의 저수율은 88% 수준으로 올해 영농용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읍지사는 예기치 않은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양수장류를 통해 저수지 농업용수의 최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양수장류는 정읍천 공공양수장(100hpX2대)을 가동해 해당저수지와 민수저수지에 저류 담수하는 방식으로 현재 두 곳의 저수율은 각각 77%, 88%로 올해 영농 이전까지 100%까지 확보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민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촌도 젊어지자... 청년농업인 다방면 지원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과 국내 식량 자급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 농촌이 필요하다. 이 해결책 중 하나인 청년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농업 인재 양성과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발판이 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정착 초기 또는 정착에 접어든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23일 농촌진흥청(청장 박병용)이 소개한 지원사업 분야는 전문교육·경영 전문지도, 청년농업인 예비 지원, 청년농업인 취업 지원, 창업지원, 공동체 육성 등이며, 각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지방 농촌진흥기관·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교육·경영 전문지도

청년농업인을 예비 지원하기 위한 예비 지원, 성장기보 분류하고,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과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예비기에는 잠재된 농업 인재 발굴을 위해 한국4-H본부와 연계하고, 청소년·대학생 4H회원을 대상으로 농심(農心) 환인과 농업 분야 취·창업 교육, 농업 미래 비전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준비기 교육단계에서는 예비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전반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이론교육과 선도가 현장실습, 농업기계 입문 등 다양한 실습교육을 실시해 안정적인 정착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정착기에는 교육 대상자별 영농 정착 수준에 부합하는 품목별 기술교육, 경영진단 분석, 농산물 창업교육

을 운영해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장기 교육은 강소농교육, 농업인 대학, 마이스터대학 같은 기존 교육과 연계를 강화하고, 농산물 가공·판촉(마케팅)·수출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보제공 서비스 활성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농업인과 영농 정착 또는 독립 단계에 있는 청년농업인을 위해, 농정정책과 지원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똑똑! 청년농부’ 누리집을 개설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운영을 시작한 누리집은 정부·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의 청년농업인 대상 지원사업, 교육정보, 창업정보, 농업정보를

농진청, 창농 지원·공동체 육성 등 소개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누리집 이용 실태 점검과 방문객 의견을 수렴해 청년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이용 만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창농·창업 지원

청년농업인의 창농 지원을 위한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을 통해 기술 자립을 지원하고, 창업 지원을 뒷받침 하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청년농업인의 참신한 생애가 사업화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우선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은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조직체가, 선도농가의 우수한 기술을 전수받아 기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사업으로 현재 전국 8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현재의 영농기반을 토대로 새로 개발된 농업기술, 농산물 가공기술, 농촌자원을 접목해 농업·농촌·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역량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달라지는 농업 경향에 맞춘 지원 유형 다양화로 우수한 생각을 가진 청년농업인들을 발굴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 공동체 육성

농진청에 속한 비영리 청년농업인 학습단체인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의 신규 회원 모집과 활동을 지원하고, 식량·원예·축산 품목별 연구 모임체 구성을 확대해 청년농업인 공동체 육성을 추진 중이다.

한국4-H중앙연합회 회원은 전국에 약 7,000명 정도가 가입돼 있으며, 지역별로 정기적인 회의 교육, 행사에 참여해 정보 교류와 영농 전문 역량을 키우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농업 인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해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신규 회원은 모집하고 있으며, 한우, 쌀, 시설채소 같은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는 청년농업인들의 소통과 교류를 돕기 위해 품목별 연구 모임체 결성도 지원하고 있다.

지역에 관계없이 청년농업인들이 인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모임체를 다양화 할 계획이다.

농진청 청년농업인육성팀 정진영 팀장은 “분명한 목표와 꿈을 갖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영농 정착과 창농·창업 성공을 위해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